

제31회 임시회 목포시의회본회의회의록

1. 일 자 : 1954(4287)년 9월 10일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1) 참석의원 : 17명

박찬규, 이복주, 명남철, 김삼성, 김남진, 이재홍, 진복춘, 임일남, 김팔용,
김경현, 이문길, 정응표, 김경희, 박찬규, 김자홍, 이소규, 김창현

2) 불참의원 : 4명

문택호, 김길환, 오세일, 김영완

4. 개회선언 : 의장

(오전 10시 30분)

5. 보고사항 :

※ 제30회 의회 회의록 보고의 건

◇ 박찬대 서기

- 회의록을 낭독

◇ 의장

- 낭독한 회의록에 이의 없으면 통과 하겠음

※ 온금동 사무소 신축경비 감사결과 보고의 건

◇ 박찬대 서기

- 동유 재산으로 성문화 되기까지 수속완료한 다음 감사장 수여는 개천
절시 하겠다.

※ 공생원 분쟁사건 해결차 상경 결과보고의 건

◇ 김자홍 의원

- 로진 박씨를 찾아 갔으나 중풍으로 입원하여 구체적인 말은 못했으나 이가 양분하여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내목숨이 살아있는 한은 안된다고 단언 하였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음

※ 동자치 운영에 대한 건의 결과보고의 건

◇ 의장

- 동세를 받아서 사용한다던가 납세의 세분같은 것은 도에서 간섭 안겠다는 비공식적인 승락이 있었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음

◇ 김삼성 의원

- 공생원 분쟁으로 아동복지회에 가입된 아동 160명을 서울로 가지고 간다는 말이 있고 아동복지회로부터 1년간 800만원이라는 막대한 보조가 있다는 이 문제를 그동안 교섭한 결과 행정부로서나 도의 지시가 여하히 흐르고 있는가?

◇ 하동현 시장

- 일일이 도의 지시를 받고 있으며, 현재 시내 복지회에 가입된 5개소에 분산 수용토록 도에 건의 했으며, 도의 사무 당국자가 지사와 상의해서 되도록 하겠다는 요지의 말이 있었음

◇ 이재홍 의원

- 목포 제주간 연락에 있어 과거에는 매일 한번씩 왕래하여 제주나 추자방면의 수백명에 달한 객화의 운수에 원할을 기하였으나 현재 이 항로의 연락선이 두절상태 있으며, 또한 환도후인 오늘에도 제주에 있는 상인이나 일반 여객이 목포항을 경유하는 것보다 3, 4배나 시간을 소비해서 부산항을 경유하고 있는 실정이요.

항구 도시인 우리 목포는 배가 많이 들어와야 살수 있으니 의회의 결의로서 목제간 전속 연락선을 배치하도록 중앙에 있는 대한해운공사에 우선

서면으로 진정서를 내놓고 중앙에 가는 편이 있으며 직접 사장을 만나서 교섭할 것과 또는 제주도 의회와도 연락을 한다던가 대표를 파견해서 공동 추진할 것을 긴급 동의

(재청)

◇ 의장

- 진정하게 되려는 목포 제주간의 항로를 담당하고 있는 한양기선회사와 교통부장관에게도 진정서를 보내자

◇ 정응표 의원

- 현재 한양기선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때 한양이나 해운이나 기타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정기 연락선으로서 건설하고 큰배로서 배치하여 목제간의 운항을 원활히 하도록 진정서 내용에 삽입하자

◇ 명남철 의원

- 항로취체 기관을 해사국장에게 있으니 중대한 제목간 취항 건의에 대한 이유와 조속한 시일내에 취항토록 할 것과 만일의 경우에는 타회사의 의뢰해서 운항토록 교섭할 것을 동의에 첨가

◇ 김삼성 의원

- 건의문을 사무당국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제안자인 이재홍 의원과 같이 작성할 것을 동의에 첨가

◇ 명남철 의원

- 해사국에 교섭위원을 의장께서 지명 선정할 것을 동의

(7청)

성립

◇ 이문길 의원

- 전일 모신문에 목포시 행정이 제일 뒤떨어졌다는 기사가 났었는데 그후 시로서는 어떠한 행정면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각 과장에게 물어보자 긴급 동의

(7청)

성립

◇ 하동현 시장

- 도의 행정주관이 국채나 세금에다 두고 있는 관계상 현재 목포의 실정이 종전과 같이 않은데 배세액이 시정치 않는데서 기인한 것이라는 요지의 답변이 있었음

◇ 정응표 의원

- 목포시만이 부패되고 다른 시가 발전되고 있다는 것도 아닌데 목포시가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집행부 간부들의 무책임한데 있는 것이다.

거반 경찰서원까지 동원해서 소화한 국채의 막대한 금액을 몇몇 사람이 착복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에 관련자도 아무런 처단도 하지 않고 있으며, 또는 죽교동 4구동에 있는 다리가 며칠 전 장마로 파괴되어 그간 내가 몇 번 건설과에 가서 예산상에 있는 것이니 고쳐달라고 했으나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또는 죽교동 4구동장이 동네 유부녀를 구타하여 고소까지 하고 있다는 말이 있어 동 행정을 맡아본 시정계장에게 물어 보았더니 전혀 모르고 있으며, 이러한 동장으로서 동 행정이 잘될 리 만무한 일이요.

타동에 비하여 가장 뒤떨어져 있는 것이다.

아무튼 목포시청은 국채사건이 있는 후 다리는 다리, 머리는 머리대로, 손은 손대로 전 직원이 4분5렬되고 있고 결재가 나온 것도 회계 직원에게 점심이나 사주어야 먼저 끊어주고 건설과에 설계하나 부탁해도 한잔 얻어 먹어야 하는 현상이요.

또는 풀장만 하더라도 개장식 날만 물이 있었지 그 다음부터는 뺨물과 똥덩이가 떠 다니고 있고 또는 탈의소에서 옷을 잃어 버렸다던가, 풀장에서 익사한 일이 있다는 것은 다른데 없는 일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시 행정을 하므로서 목포시 행정이 가장 뒤떨어진 원인이 있으니 집행부에서 이런 무책임한 일에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답변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 김경현 의원

- 국채소화에 있어 청원들에게 개인당 15, 000환씩 책임제 할당을 시킨관

계로 각자 책임액만 완수하기 위하여 다액자인 만화이나 2만환 자리도 천환이나 2천환이나 받는 불합리한 소화 방법을 쓰고 있으며, 또는 용당 도선에서 빠져죽은 것에 대하여도 선장이 잘못된 일도 없는데 염암에서나 강진에서 선정이 불러 다녀도 시로서는 아무런 조치도 않고 방관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를 하고 있다.

◇ 이문길 의원

-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시에 양과가 있다하니 시장으로서 양과 대립을 알고 있는가? 없는가? 아시는 범위에서 말씀해 주기 바람

◇ 이복주 의원

- 한달전 목일지상에 재무과장 임시 직원 채용이 있어 시직원의 추천이 없이는 안된다는 기사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총무과장에게 질의 하였던바 오히려 정면으로 얼굴을 붉혔으며, 또는 음력 명절을 폐지하는 의미에서 좋은 일이나 언제나 그러한 날만 받아서 의회를 여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기 바람

◇ 김창현 의원

- 수도요금에 대하여 시장은 50전 이상 안받겠다 하였으나 사실 업자는 1환을 받고 있으며, 또는 시에서 직영하는 공사에 있어서 인부 사용한 실지 수효와 지불한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 아닌가?

그리고 지난번 폭풍경보가 있을 때 폭풍을 피하기 위하여 제 2 삼학회를 용당동 석축천교 옆에다 피난 시켰는데 선박을 충실히 지키지 못한 것과 또는 석축이 무너져 있는 것을 수차례나 의원들이 꺼내자고 권유했으나 꺼내면 또 무너진다고만 하고 건설과에서 방치했다.

그러나 그 당시 꺼내게 되면 천여환 밖에 들지 않을 것을 4, 5천환 들어서 꺼내는 사후약방적인 시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알고싶다.

◇ 이소규 의원

- 시행정의 침체성에 있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다.

목포시 행정이 제일 뒤떨어져 있는 것에 대하여는 시장의 말대로 배세액이 많다는 것에서가 아니라 전반 사무 감사시를 보건데 당시 청내의 공기가 완전히 분열되고 있었으며, 그 원인을 규명컨데 시장께서 전 총무과장 조운용 씨 한 사람만 과대히 믿고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각 과장간의 융화가 되지 않는 것과 각자 개성과 주관이 맞지 않는다 해도 시발전을 위하여 시장을 잘 보좌할 것이 아니라 해봤자 알아주지 않고 있으니 각자 주의대로 나가고 있다.

앞으로 시발전에 일심동체로 나가지 않는다면 이문길 의원의 말대로 앞으로 시행정은 암담할 것이다.

◇ 명남철 의원

- 목포시 행정이 제일 뒤떨어진 이유로서는 시장께서 배세액이 많다는 것이나 각 의원께서 말씀한 것에 본 의원도 동감이다.

시행정을 하는데 있어 시장은 시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나가서는 않된다. 시장께서 보는 점에서 지금까지 해 나온 시 행정에 있어 올바른 확고한 시정을 해 왔는가? 확고한 답변을 해주기 바람

※ 이하 의원 측 질의 생략

◇ 이복주 의원

- 의원측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 의회에서 듣기로 하고 부의안건중 1954(427)년도 제1기 호별세 부가금 부과를 변경의 건과 교육위원회 일시차입의 건이 급한 것 같으니 먼저 이 자리에서 심의하고 다른 안건은 전문가 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토록 하자 긴급 동의

(3청)

◇ 김삼성 의원

- 비료공장 나주 설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극력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거도적으로 해야될 문제이니 우리 의회에서 대책위원회에 격려문을 보내자 긴급 동의

(7청)

◇ 의장

- 긴급 동의에 대하여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7명중 가 17
전원 가결

◇ 정응표 의원

- 행정구역이 복잡해서 선거 시 마다 복잡을 이루고 있으니 우선 선거 구역만 변경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있어서는 의장을 포함한 의원 5명으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며, 추진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연구한 다음 시장에게 건의해서 허가 수속절차 및 승인을 말도록 하자 긴급 동의
(7청)

※ 긴급 동의 성립

※ 구역 변경에 대한 질의응답 생략

◇ 의장

- 가부를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6명중 가 14
가결

※ 추진위원에 부의장, 4분과위원장 5명을 지명 선정

◇ 정응표 의원

-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람 진행

◇ 의장

- 이복주 의원의 긴급 동의를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6명중 가 8
부결

◇ 김경현 의원

- 행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되니 연구해서 하기로 다음 의회에
미루고 의사일정대로 부의안건으로 들어가자 동의
(재청)

◇ 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6명중 가 12
가결

※ 1954(428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개정 예산의 건(제2회)

◇ 의장

- 본 건 심의해 주기 바람

◇ 명남철 의원

- 1, 2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 동의
(재청)

◇ 이재홍 의원

- 본건은 내무, 문교사회 양 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케 하자 개의
(재청)

◇ 이소규 의원

- 본 추가개정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주로 건설적면의 시급히 해야할 내
용이니 5분간 심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 명의원대로 이 자리에서 가결짓
자.

※ 이재홍 의원의 개의안 취소

◇ 의장

- 명의원의 동의에 표결 하겠음
재석의원 16명중 가16
가결

※ 목포시 동세조례 개정의 건

◇ 이제국 총무과장

-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 김경현 의원

- 본건은 지방세 개정에 수반하여 전국적에 선한 것이니 원안 통과하자 동의
(재청)

◇ 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4명중 가 12
가결

※ 목포시 공설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 개정의 건

◇ 박연태 산업과장

-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 정응표 의원

- 본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 명남철 의원

- 가축시장은 한달에 10일간 밖에 열지 않는데 직원은 상무로 배치할 것인가?

◇ 이제국 총무과장

- 실지는 매일 개시하나 허가가 격일제로 되어 있어 그러하나 상설로 허가를 변경하겠다.

◇ 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4명중 가 12
가결

※ 1954(4287)년도 제1기 호별세 부가금 부가율 변경의 건

◇ 김용준 사무과장

- 설명이 있었음

◇ 정응표 의원

-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3청)

◇ 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4명중 가 14
가결

※ 1954(4287)년도 교육위원회 일시 차입의 건

◇ 임일남 의원

- 본 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3청)

◇ 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4명중 가 14
가결

◇ 의장

- 회의록 서명에 김경현, 김자홍 의원을 지명

6. 폐 회 식

폐회선언 : 의장

(오후 1시 25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 날인함

1954(4287)년 9월 10일

의장 : 박찬규

의원 : 김경현

” : 김자홍

작성자 서기 : 천세봉